**소 명 /릭 조이너**

****

† 소 명

나는 종종 회중들에게

“여러분들 중 자신의 소명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?”라고 묻습니다.

그러면 대개 10% 미만의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.

나는 또 그들에게

“여러분들 중 몇 명이 그 소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?”라고 묻습니다.

그러면 대부분의 손들이 내려갑니다.

대개 전체 회중의 겨우 1% 정도만이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고

그 길을 걷고 있다고 대답합니다.

만약 우리 몸의 1%만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

우리들 중 살아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?

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일반적으로 약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주요 원인입니다.

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

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.

시119:105.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게 등잔이며, 내 길에 빛이니이다.

이 말의 뜻은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그러나 대부분의 첫 기간동안 우리의 비전은 일반적일 것입니다.

그러다가 우리가 목표를 따라 전진해감에 따라 그것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됩니다.

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.

잠0418. 그러나 적법한 자의 길은 비추는 빛과 같으니,

그것이 완전한 낮까지 점점 더 많이 비추느니라.

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길은 앞으로 전진해감에 따라

점점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.

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걸음에는

아마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 것입니다.

(릭 조이너가 지은 “21세기를 위한 예언적 비전” 중에서...)